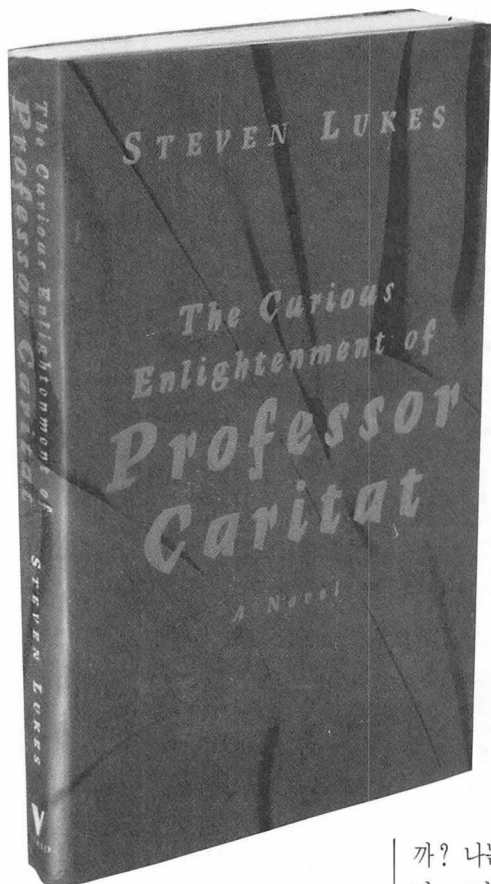


# 이상사회를 찾는 새로운 '걸리버여행기'

스티븐 룩스 지음 《카리타트 교수의 이상한 계몽》

김종업

서울대 강사·사회학



**주인공 카리타트는 인류미래의 낙관적 이념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저항집단 '보이는 손'에 구출돼 '최선의 세계'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리타트는 여행을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걸인이 된 카리타트에게 올빼미는 이상들이 연결되는 곳에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까? 나는 이런 궁극중 속에서 소설을 읽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한 이론가가 스스로에게 마련한 여가 이상의 것이었다.

### ‘최선의 세계’를 찾아

주인공의 이름 카리타트는 콩도르세의 세컨드 네임에서 따온 것이고, 그는 18세기 계몽주의를 연구하는 ‘밀리타리아’라는 나라의 학자이다. 그는 어느날 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이념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저항집단인 ‘보이는 손’에 의해서 구출되어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이 사명을 위해 그는 존재하는 세계들을 찾아간다.

첫번째로 간 나라는 ‘유틸리타리아’이다. 벤담과 밀의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 세계에서 그는 잘 조직된 ‘복지국가’ 형태의 사회를 보게 된다. 그들은 카리타트를 환영하며, 이 나라에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 세계는 완벽하게 조직된 복지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투쟁이 존재한다.

하나는 누가 시민의 욕구를 해석하느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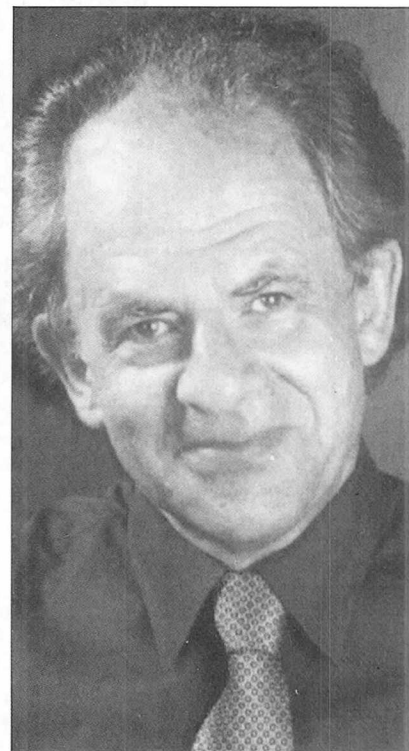
둘러싸고 전문가적 지배를 선호하는 집단과 인민 자신의 계산을 선호하는 집단간의 투쟁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회의 소수집단인 ‘비고트리안’의 테러문제이다. 그는 이 비고트리안에 의해서 납치된다. 그리고 유틸리타리아의 지배집단에 의해서 효용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버려진다.

그러나 그는 이 세계를 탈출하여 ‘코뮤니타리아’로 가게 된다. 이 사회는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 사회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타집단에 대한 존중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그들은 사소한 말에서도 모욕을 발견하며, 이것이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낸다. 다음으로 어떤 구체적 공동체도 갖지 않은 여성집단의 불안정한 정체성 문제이다. 또한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결혼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이 사회는 그들을 박해한다. 요컨대 이 사회는 공동체와 집단적 정체성은 있지만 개인과 인격적 정체성은 없는 사회인 것이다. 카리타트 또한 여기서 사소한 일로 성적 학대의 혐의로 청문회에 불려들어간다.

그는 이 당혹스러운 사태를 피하여 기차를 타고 우연히 ‘프롤레타리아’라는 나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칼’과 ‘프레드’(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의미)를 만난다. 국가와 시장과 소외가 소멸한 이 세계에서 그는 이들과 더불어 아침에 사냥하고 점심 때는 낚시하고 밤에는 비판을 한다. 그러나 이 사회의 공장에서 그는 음울한 반복의 리듬을 들으며, 다음 사회 ‘리베타리아’로 가게 된다. 사유화가 진행되는 동구권 사회를 연상시키는 이 사회 안에서 그는 자유를 발견한다.

### 콩도르세의 지혜

그러나 그 자유는 복지 혜택을 받던 정신병자들(무차별한 시장사회가 야기한 정신병자들)을 쫓아내고, 국립도서관의 책마저 1,000원 단위로 분양하는 자유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팔 수 없었고, 그래서 병원 노동자와 짐꾼, 그리고 웨이터로 일하며, 끝내는 병원에서 쫓겨난 정신병자들과 철도역에서 잠을 자는 걸인이 된다.



스티븐 룩스 교수.

그리고 우연히 번 돈으로 리베타리아 북단의 ‘미네르바’로 간다. 그는 그곳의 ‘헤겔 카페’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콩도르세처럼 오믈렛을 먹으며, ‘올빼미’로부터 오래된 콩도르세의 지혜를 다시 듣게 된다. 어떤 이상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상들이 ‘연결’되는 곳에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이런 이야기를 시종 유머를 잃지 않고 해나간다. 하지만 이 새로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하여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한 것은 진보라는 이념을 상실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체제를 가능한 최선으로 생각한 시대가 가진 문제라는 심각한 주제이다.

그렇다면 룩스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그는 말미에서 개괄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궁극한 것은 카리타트 교수가 소문만 듣고 찾아가지 못한 ‘이갈리타리아’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다. ❖

Steven Lukes, 《The Curious Enlightenment of Professor Caritat》(Verso, 1995)